사설

공존 지켜낸 결정, 이제는 성찰의 시간

지난주 있었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폐지 안건이 부결됐다. 대학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이번 부결은 그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사회와 학소위, 그리고 총학생회는 학내 자치기구의 의미와 제도적 허점을 짚어봐야 한다.

학소위 존폐 논쟁은 단순히 한 기구를 둘러싼 찬반 대결이 아니었다. 정경대 학생회는 특정 대선 후보 강연 갈등을 계기로 학소위 존재 이유를 문제 삼았고, 학소위는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장치로서 필요성을 호소했다.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우려는 학내 공론장이 언제든 대립 속에서 '존재 자체의 폐지'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운영이 미흡했다고 곧바로 존폐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대응이자 반민주적이다. 대학 공동체의 공론장은 불편한 비판을 배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찰과 보완, 논리적 대화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학대회 이후 만나본 참여위원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래도 여러 학생이 공론장으로서 대학의 의미를 확인한 모습을 보여줘 다행스럽기도 했다.

존폐 논의의 직격탄을 맞은 학소위 또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정지출, 발제비 기준, 외부 단체 분담금 등 운영상의 허술함이 감사에서 지적됐고, 학소위 위원장 또한 일부 미흡함을 인정했다. 존립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급한 개선은 필요하다.

서명운동과 공청회에 머무른 대응 방식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소수자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학내 여러 부서가 학소위와 협업하는 만큼, 소수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학내 구성원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본인들의 가치를 널리 알렸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전학대회 이후 총학의 대응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안을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기 위한 전학대회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일부 대표자의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 게다가 회의 속기록 역시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아, 학내 구성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진 부결 소식은 학소위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만 나왔을 뿐, 3분의 2를 넘지 않은 찬성률은 몇 % 인지, 전학대회 안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내 구성원은 시일 내에 회의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기록과 발언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자치기구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폐지냐 존속이냐'의 소모적 대립을 넘어서는 일이다. 학소위는 성숙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존재 의의를 증명해야 하며, 학생 사회 전체는 제도 보완을 통해 자치 민주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특정 단체를 없애자는 성급한 태도를 내려놓고, 개선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제2기숙사 식당 정상화를 위해

제2긱의 명예회복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제2기숙사 학생 식당이 기존 운영 업체인 리앤이라마띠네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와의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총 7개 업체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고, 오는 9월 중 식당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만큼, 제2기숙사 식당이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려 한다.

제2기숙사는 학생의 거주 공간으로 편의 시설이 우정원만큼 몰려있는 장소다. 학생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함은 기본이고, 식당 운영으로 식생활 또한 책임지는 곳이다. 여기에 부대 시설도 입주해 있어 건물 내에서 거의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 그만큼 기숙사 생활 중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는 식당 운영 주체에 대한 학내 관심과 기대는 늘 높았고, 음식 품질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하지만 제2기숙사 학생 식당은 오랜 기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는 별다른 데 있지 않았다.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기본 위생 문제가 여전했고,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품질도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학내 구성원 신뢰가 바닥을 치기에 이르렀고 유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기숙사 1층 식당에는 언제부턴가 사람이 찾아오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젠 변화의 시작으로 새 업체가 들어오게 됐으니, 획기적 변화보단 안정적인 정상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 투명한 정기 점검, 구성원 피드백 진행 등이 모여 이전의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 학교의 꾸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식당-학생 간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가며, 학생식당으로의 기능을 회복한 학생회관처럼, 제2기숙사도 캠퍼스 내 복지 완전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만평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학생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세시봉

군대 '입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최근 입대를 앞둔 친구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자격증을 여럿 준비해 겨우 공군에 붙었다"며 기뻐하던 친구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이미 전역을 한 나로서는, 군대가 '합격'의 대상이 돼 버린 것이 꽤 충격이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자격증 하나 없이도 무난하게 공군 입대가 가능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군 입영 경쟁률은 2023년 2.9:1에서 2024년 5.0:1로 급격히 올랐다. 특히 3월 경쟁률은 10.7:1을 기록했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스펙이 기본이라고 한다. 공군을 준비하던 한 지인은 "가산점을 받으려면 헌혈과 정보기술자격증은 필수"라고 말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경쟁력 있는 스펙을 위해 그는 지게차 학원 등록까지 알아봤다고 한다. 월 150만 원에 공군 입대를 '컨설팅'하는 업체도 등장했다고 한다. 대입 경쟁을 방불케 하는 군대 '입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특정 군별의 인기로 경쟁이 치열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십여 년 전에는 해병대 지원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군 열풍은 해병대와는 좀 다르다. 공군의 인기가 지원자의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선 대입·취업 경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뉴스에는 '6세 의대반'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공군 열풍'으로 인한 경쟁 과열 현상을 보면 기시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군입대까지 번진 경쟁 과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군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다. 군 생활은 많은 공인과 유명인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젠 입대부터 스펙이 성공을 좌우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현상이 군 생활의 영역까지 스며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의 경쟁 과열 구도를 더욱 고착시키게 할지도 모른다.

공군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타군별보다 나은 복무 여건, 많은 휴가일 수 등이라고 한다. 반대로 말하면 군별마다 생활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육·해·공 구별 없이 모든 군인이 같은 수준의 환경에서 군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또 의무복무만큼은 스펙보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선발 방식이 바람직하다. 군대마저 서열화, 입시화되는 사회는 피하고 싶다.